

세경본풀이

이번에는 세경본입니다.

먹은 이도 세경의 덕, 입은 이도 세경의 덕. 이게 무슨 뜻이고 허민. 우리가 먹는 것도 다 쌀로 해서 밥을 헤먹기 때문. 세경 땅에 농사를 지어서 먹었기 때문, 먹은 이도 세경이 덕. 입은 이도 세경이 덕이엔 현건. 이웃 같은 것덜, 뭐해서 다니는 것도, 다 땅에서 만들고 허기때문에 세경이 덕. 농사짓는 것도 세경의 덕. 우리가 살아서도 세경 땅에 살고, 집 짓영사는 것도 세경 땅에 집을 짓고, 걸음 밭 허는 것도 세경 땅에 난 텅기고, 살당살당 죽어도, 뭐 묻엇던 화장을 헛던, 땅더레 강은에 허는 거난, 세경이 덕. 게난, 세경은 반대를 못허는 게 세경이고.

옛날은 옛적에, 원진국 대감님과 즈지국 부인님이 살앗인디. 부베간이 춤 잘 살아도 애기가 엇어. 애기가 엇이난, 절간 법당에 간 수륙을 드련. 애긴 낳는 건 보난, 딸을 난 거 아니. 겐 이 딸을 금인가, 은인가. 상다락, 중다락, 하다락에 키우고. 불민¹⁾ 놀아나불카²⁾, 췌민³⁾ 까질건가⁴⁾. 막 금인가, 은인가 허연 키우는다.

이 딸이 흔 설, 두 설 열다섯 십오 세가 돼여가난. 이제 글공부도 허고, 활공부도 허고 하간거⁵⁾ 다 허는다.

흐를 낳은 늦은덕정하님 거느리고 허연. 주천강 연훼못덜 연세답⁶⁾을 갖추. 겐 연세답을 간. 연세답을 와랑자랑 허노렌 허난. 꽃⁷⁾뜬 도련님이 넘어가는 거라. 게난 확 일어산 보난 손으로 물을 확확 거련 먹었이난. 즈청비가 먼저 막음⁷⁾에 잇이난 간 거주게. 옷통더레 간.

“아이고, 도련님아, 도련님은 어디레 가는 도련님이 뵈네까?”

허난.

“난 거무선생안티 글 공부 값우다.”

허난

“아이고, 겐디 먼 길을 가는 분이 손으로 경 물을 먹으면 속 몰라가는

1) 불민: 불면.

2) 놀아나불카: 날아버릴까.

3) 췌민: 쥐면.

4) 까질건가: 깨질건가.

5) 하간거: 이것저것의 모두.

6) 연세답: 빨래.

7) 막음: 마음.

냥 목이 물르고⁸⁾, 경 허영 안 뵈네다.”

경 허명. 이제 그릇에 물을 확 떠. 수양청버드냥 씹⁹⁾을 확허게¹⁰⁾ 흘턴¹¹⁾ 사발드레 놓안 안넌거라. 게난 문도령은 허는 말이,

“이거 물에 티가 잇이민 티를 주어뵈 주는게 정 사실이거늘. 어째서 물에 티를 놓아서 줘니까?”

허난

“아이고, 먼 길 행허는 것 같아서, 급허게, 제기¹²⁾ 먹으민 물에 언친¹³⁾ 건 약도 엇인 법이난. 물에 경 풀잎사릴 놔사¹⁴⁾ 닛굽¹⁵⁾으로, 그 풀잎사릴 안 먹젠 허민 닛굽으로 슬슬 불어사 물에 체허질¹⁶⁾ 안허는 법입네다.”

허는 거라.

“아, 그렇습네까.”

헨 가젠 헤가난

“아이고, 도련님아, 저양. 우리집이도 간 보민 양. 나영 혼 텃줄¹⁷⁾에 난 쌍둥이 오랍동싱¹⁸⁾이 잇인다. 거무선생안티 공부허레 가젠 헤도 친굴 엇 영 못 값우다. 경 허난. 우리 오랍동싱 혼디¹⁹⁾ 들양²⁰⁾ 강 공부허는게 어떻 허파?”

허난

“경 허건. 경 험서.”

허연. 허던 연세답 물 잘잘 나는 거 문딱²¹⁾ 설런²²⁾ 이젠 집으로 들어간 거아니.

“아바님아, 어머님아, 나 거무선생안티 글공부 가쿠다.”

허난

“어따, 춤 지집년²³⁾이 남도 낫저. 무슨 글공부 말이고.”

8) 물르고: 마르고.

9) 씹: 씹.

10) 확허게: 재빠르게 움직이는 꼴.

11) 흘턴: 흘어서.

12) 제기: 빨리.

13) 언친: 체한.

14) 놔사: 놔야.

15) 닛굽: 잇몸

16) 체허질: 체하지.

17) 텃줄: 텃줄.

18) 오랍동싱: 오라비, 동생

19) 혼디: 함께.

20) 들양: 데리고.

21) 문딱: 모두. 전부.

22) 설런: 하던 일을 끝내려고 정리해서.

23) 지집년이: 계집년이.

허난

“아이, 경 해도. 집안에 무신 일이 나민 누게 빌영 축지방을 쓰멍 험네
까. 글공부를 해야 돼쿠다.”

허난

“경 허민 강 오렌.”

허난. 이젠 여복 방에 놀러들언²⁴⁾ 여자 옷을 다 벗어두언, 남복 방에 놀
러들언 남자 옷 다 입언. 오랍동생이엔 거짓말 해부난, 이젠 남자로 출련.
겐 남자로 출려앗언, 이젠 올레에 간 허난에 문도령은

“아까 들어간 애기씨광 얼굴이 똑 곱으텐²⁵⁾.”

허난

“흐 아방 생기고, 흐 어떻 난 형제간이 딱날 수가²⁶⁾ 잇수가.”

허연. 이젠 거무선생안티 간 게. 밤이 늑젠 허난²⁷⁾

‘아이고, 이거 남자 여자가 밤이 누윙 즘질에라도 알민 이 노릇을 어떻
허민 좋고.’

막 탄복을 헨 거라. 경 허단 밤이 이젠 즘 자젠 허믄

“문도령님아,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 허렌²⁸⁾ 아니 험데가?”

허난

“아무 말도 안 험데다.”

허난

“우리 어머니양, 밤에 즘 잘 때에 은대양에 물을 땡, 은하시(젓가락)를
가운데 걸청 그걸 가운뎃 놓양 즘을 자사, 그걸 안 떨어지민 글이고 활이
고 다 잘 쏘양 가고, 그걸 떨어치우민 낙방을 헨텐 험디다.”

계난

“우리 어머니, 안 곱읍데다²⁹⁾. 게걸랑³⁰⁾ 우리 경 허영 잡주.”

허연.

은대양 물 땡 하시³¹⁾ 착 두 개 걸치난. 문도령은 그것에 속아노난 하시
착만 털어지카부텐, 보실락, 이레 보실락 저레 보실락 허단 보난. 밤세

24) 놀러들언: 덤벼들어서.

25) 곱으텐: 같다고.

26) 딱날 수가: 다를 수가.

27) 늑젠 허난: 누우려고 하니.

28) 어떻 허렌: 어떻게 하라고.

29) 안 곱읍데다: 말하지 않았다.

30) 게걸랑: 그렇다면.

31) 하시: 젓가락.

냥³²⁾ 줌을 못자고, 즈청빈 지가 거짓말 허연 곶아진 거난, 털어지고 씨
곡³³⁾ 막 몸질허멍 자단 보난. 이젠 줌 푸지게³⁴⁾ 잔 거주게. 경 허멍 글공
분 허난. 즈청비는 거무선생 곤는 양 잘허고, 문도령은 앓앙 막 꾸딱꾸딱,
밤이 줌 못자부난. 즐단 보민³⁵⁾ 글도 못허고 활도 못허는 거라. 경 허난
이젠 즈청비가 허는 말이 우리 경 말앙 양. 우리 시합이나 헤보주.

“어떤 시합을 험네까?”

허난. 아, 거무선생이,

‘분명히 즈청비 허는 건 보면 여자가 닳은디 저렇게 남자 행동을 헌텐
말이여.’

계난

“너네덜 경 말앙. 아침이랑 삼베중이³⁶⁾를 입엉. 아침이 동더레 해 떠
올 때랑 그레 걸음을 걸어보렌.”

‘아이고, 이놈이 노릇은 어땡허믈 좋고.’

이젠 어디 간 뭇똥³⁷⁾ 봉가단³⁸⁾ 썰로 묶언 이제 양 다리더레 묶어 앓언.
경 허연 이젠 어글락 어글락 걸어 가 가난. 이젠 남자 행착 헌 거 아니.
거무 선생이 경 허민 그것에도 속아 넘고. 경 허민

“너네덜 둘이가 씨름이나 헤보렌.”

계난 씨름은 헤보젠 허난. 어느동안 정지³⁹⁾에 간에 춤지름⁴⁰⁾ 헨 귀레레
블라 놓안. 문도령은 혼 번 두루 메영치민, 즈청빈 두 세 번이나 와자착
와자착 두러메영⁴¹⁾ 쳐불고⁴²⁾, 겐 씨름헤도 저.

이젠

“오줌 곶길락⁴³⁾이나 헤보젠.”

헨. 오줌 곶길락허젠 허난 문도령은 숫봉이라부난⁴⁴⁾, 그냥 곶기고, 즈청
빈 왕대 죽대 열두 막작⁴⁵⁾ 헤단 알드레 받천 곶기난, 열두 방축을 곶긴

32) 밤세냥: 밤새도록.

33) 털어지고 씨곡: 떨어지든지 말든지

34) 푸지게: 충분히.

35) 즐단보민: 즐다보면.

36) 삼베중이: 삼베로 만든 바지

37) 뭇똥: 말똥.

38) 봉가단: 주워서.

39) 정지: 부역.

40) 춤지름: 참기름.

41) 두러메영: 둘러메어서.

42) 쳐불고: 내치고.

43) 곶길락: 어린아이들이 하는 내기로, 오줌 따위를 멀리 싸기 내기.

44) 숫봉이라부난: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라서.

45) 막작: 마디(節)

거라.

오줌 골길락이도 지고, 씨름허기도 지고, 글공부도 지고, 모든 것이 다 진거라. 경 허난 문도령은 공부할 취미가 엇어져분거라, 모든 것이 다 지어가난. 계난 흐를은 잇이난, 옥황에서 편지 서신 오기를. 아버지 어머니 이 편지 서신 보낸 거주.

“문도령아, 혼자 오랑 서수왕에 장계 가라.”

허연 편지가 탁 허게시리 세수허노렌 허난, 은대양에 털어지난. 이젠 즈청비신더레 편지 뵈우명

“이거 봅서.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, 날 7라 혼자 왕 장계가렌, 서수왕에 장계가렌 허연 편지 오랏수다.”

허난 즈청빈 가슴이 덜컥 헌거라. 이녀은 문도령을 짝사랑허영 끝이 왓인디 이제 문도령만 가불민 어떻허리. 경 허연 이젠

“아이고, 기짜.”

허여된. 지도 확 들어간 먹으로 박박허게 확 써네.

“아이고, 문도령님아, 이거 봅서. 우리 아버지, 어머니도 나신디 제계 왕 장계 가렌 허연 편지 오랏수다. 겐 우리 올 때도 혼자 오랏이때⁴⁶⁾ 갈 때도 혼자 가당 헤어지는게 어떻 허우짜?”

허난

“경 험서.”

허연. 이젠 거무 선생 하직허연. 이젠 장계들 가켄허연. 딱 즈청비네 올레 오난. 저, 즈청비네 올레가 아니고, 오단. 몸모욕⁴⁷⁾이나 이제랑 헤영 헤어지겐, 이제 연삼 년 동안 때영 헛이난에, 몸모욕 허영 헤어지겐 허연. 주천강 연훼못디 허난 문도령 신디레

“모든 걸 나신디 저부난⁴⁸⁾ 알통에서 험서. 나는 문도령안티 모든 걸 이겼이난 옷통에서 모욕을 허쿠다.”

허연

“경 허렌.”

허연. 문도령은 진짜로 몸을 멘들랙이⁴⁹⁾ 벗영 모욕을 평당평당 허고, 즈청빈 옷 안벗언 벨착벨착 손발만 씻은 거주게. 겐 손발만 발착발착 씻어가난 이젠

46) 오랏이때: 왔으니까.

47) 몸 모욕: 몸 목욕.

48) 저부난: 저버렸으니.

49) 멘들랙이: 옷을 다 벗어 버린 꼴.

‘아이고, 이디서 헤어지민 이제 다시 언제사 만날런지.’

생각을 허난. 수양버드낭 이파릴 확허게 꿔영 그디 글 삼제(三字)를 쓴 거라.

‘이 멍청한 문도령아, 연삼 년 동안 혼디 살아도 남녀 간에 구별 모른 문도령아.’

경 허연. 이젠 그걸 띠우난, 막 몸모욕허단 보난에, 무시거 수양버드낭 이 동글동글 떠 와. 그거에 보난 글 삼제(三字)가 딱 베겨진 거라. 경 허난

‘아이고, 이거 나가 속아지엇구나.’

웃을 제게 입영 가살건디, 즈청빈 그냥 집더레 도망가불고, 문도령은 마음은 급허지, 웃은 입젠 허난. 바지에 다리 하나씩 드물려야 헐 건디, 그냥 바지가달 하나에 다리 두개가 들어간. 이레도 팡 얹어지고, 저레도 팡 얹어지고. 제우제우⁵⁰⁾ 이젠 막 와려지민⁵¹⁾ 허고

‘게메⁵²⁾ 내가 꼭 여잔 줄 알앗인디, 남자에 행동을 하니까 나도 착각허연⁵³⁾ 남자로 속안 이제 지금까지 살아졌구나.’

허연. 경 허연 올레에 간. 그냥 집더레 들어가카부덴, 즈청비는 벌써 알안에 올레에 간 산 거주게. 게난 놀려들언 즈청빌 막 안아가난 즈청비 허는 말이

“영 허지 말앙. 나가 들어강. 아버지, 어머니신디 강 허락을 말앙 오쿠다.”

허난

“경 허렌.”

허연

이젠 허락을 말으레⁵⁴⁾ 가는디 들어간에.

“아바님아, 어머님아, 나, 간에 글공부허연 연삼 년 살안 오랏수다.”

허난

“엇다, 나 뜰 애기 착실허다. 느⁵⁵⁾ 방으로 들어가라.”

허난에

“아니, 경 험게 아니고. 나영 같이 간 글공부허던 친구가 잇인디 해는

50) 제우제우: 겨우겨우.

51) 와려지민: 급하게 서두르긴.

52) 게메: 그러게 말이야.

53) 착각허연: 착각해서.

54) 말으레: 말으러.

55) 느: 네.

서산열락(西山日落) 지어지고, 질에 질병나고, 밭에 밭병 난 갈 수가 엇이
난, 나영 혼디영 오늘밤이랑 누웠단 가는게 어떻허파?”

허난에

“남즈가, 여자가?”

허난에

“아이고, 남자 자식을 어떻 들양옵네까⁵⁶⁾. 여자우다.”

허난

“열다섯 십오 세 안네걸랑⁵⁷⁾ 느 방으로 들양가고, 열다섯 십오 세가 넘
엇진 이제 어떻 방으로 보내라.”

허난

“열다섯 십오 세 아래우다.”

허연. 이젠 올레더레 여자 옷 앓안 간. 올레 간, 남자 옷 다 뺏겨된. 이
젠 여자 옷 입져 놓안. 손 심영 이녁 방더레⁵⁸⁾ 들양 간 거라. 들양 가난
그때부터 열두 스랑을 다 풀리고, 즈청비 귀한 즈식이난, 상다락이여 중다
락이여 열그럭 덜그럭. 이제 뭐 비단클이여 막 부제칩⁵⁹⁾이 잇이난, 그런
것들 막 허고 헌거 아니. 겐 그날 밤이 지세연 허는디, 올라가젠 허난에

“아이고, 문도령님아, 가쁜 이제 어떻험니겐. 계난 본메본짱⁶⁰⁾이나 내
여취똥 잡서.”

허난. 이젠 도실씨 혼 방울을 내어준 거라. 도실씨 혼 방울 내어주멍

“이거 창 무똥⁶¹⁾에 싱경. 이거 순이 나고, 잎이 돋고, 남이 뉘영⁶²⁾ 이
도실꽃⁶³⁾을 피영 열매가 올안⁶⁴⁾, 타 먹없이민 나가 강 오켄.”

“계민 경 험셴.”

허연. 이젠 옥황더레 문도령은 올라가불고, 그날부터 도실씨 이젠 창 무
똥에 싱건. 것이 순이 나고, 잎이 돋고, 겐 남이 뉘고, 꽃이 피언에. 도실
이 올안, 걸 판 먹어도 문도령은 소식이 엇인 거 아니. 아이, 그게 환장을
헌 거라. 즈청빈 막 이날이나 올건가, 저날이나 올건가. 막 그냥 엇인 신
경질이 나고 막 허연 허노렌 허난. 혼번은 질레에 나간 보난. 놈이 집이

56) 들양옵네까: 데려옵니까.

57) 안네걸랑: 안이거든.

58) 이녁 방더레: 자기 방으로.

59) 부제칩: 부잣집.

60) 본메본짱: 증거가 될 만한 사물.

61) 무똥: 드나드는 문이 있는 출입구나 그쪽의 가장자리 주변.

62) 남이 뉘영: 나무가 되어서.

63) 도실꽃: 복숭아꽃.

64) 올안: 열어서.

장남덜은 물몰이⁶⁵⁾ 쉼몰이⁶⁶⁾에 막 진달래여, 아지랭이 꽃이여 꺾언, 산천(山川)에 간 물믄쉬(馬牛) 맥여앗영 어리렁아 떠리렁아 내려오는 거라. 겐 그 꽃 하나만 드렌허난

“상전님네 집이도 정이엇인 정수냄이, 밥도 아홉 동이 국도 아홉 동이 먹영 경 즈만 자게 말앙, 강, 믄쉬 강 먹임도 허고 꺾어오렌 험서.”

허난

“아이고, 맞덴.”

허연. 이젠 집이 완에

“야, 정수냄이야, 경 즈만 자지 말앙. 강 저 놈이 집 고추룩⁶⁷⁾ 강 아지랭이꽃이여 진달래꽃도 강 꺾영 오고 경 허렌.”

허난. 그때엔 이제 진달래꽃도 꺾으고 아지랭이 꽃도 꺾으고 행 오켄 허연. 물 아홉 쉼 아홉 꺾영 나간 거 아니. 겐 나간 동더레 벌은 낭 하나에 물 아홉 묶으고, 서더레 벌은 가지에 쉼 아홉 묶으고. 게동. 진⁶⁸⁾, 미어진 벵디⁶⁹⁾에 누원 동더레 돌아누원 혼즘⁷⁰⁾, 서더레 돌아누원 혼즘 자단 보난, 물 아홉 쉼 아홉은 물도 먹고정 허고, 애가 킁킁 믄르난⁷¹⁾ 다 죽은 거라. 일어난 보난 아이고, 이젠 이걸 어떻 허린. 작박 ㄱ똥⁷²⁾ 손콍으로 그 물 아홉, 쉼 아홉 문딱 벵건⁷³⁾. 이젠 멩게낭⁷⁴⁾ 숯불 피완. 익어시냐 혼 점, 설어시냐 혼 점 허멍. 다리 종끄랭이⁷⁵⁾ 앳앙. 그걸 문딱 물 아홉, 쉼 아홉 먹언. 이젠 가죽 머리만 등에 진거라. 가죽만 낚 등에 지언.

‘아이고, 이제 집이 가민 상전님안티 무시거옌 곶앙 이 욱을 들으리.’

헨. 거 지언 오노렌 허난 올리수에 보난, 올리⁷⁶⁾ 한 쌍이 툃락툃락 튀었어. 허난,

‘아이고, 저거 맞형 가민 우리 상전님 좋아헐거난에 저거나 맞칭 가주.’

헨. 이제 황기도끼 내난, 이레 황 저레 황황허연 걸로 탁허게 물더레 맞

65) 물몰이: 말몰이.

66) 쉼몰이: 소몰이.

67) 고추룩: 처럼.

68) 진: 자기는.

69) 벵디: 넓은 벌.

70) 혼즘: 한잠.

71) 킁킁 믄르난: 몹시 마르니.

72) 작박 ㄱ똥: 주걱 같은.

73) 문딱 벵건: 전부 벗겨서.

74) 멩게낭: 청미래덩굴.

75) 종끄랭이: 아주 편한 자세로 거칠 것 없이 두발을 쭉 편 모습.

76) 올리: 겨울에 날아드는 철새인 오리 따위를 모두 일컫는 말.

치난, 올린 푸드득 놀아나불고, 황기 도끼는 물 알려레 소로록 허게 골라
앗아분 거 아니. 아이고, 이젠 이 도끼를 훑아살건디 옷 멘들렉이⁷⁷⁾ 벗어 놓
아된 강, 동으로 들엉 서으로 나고, 서으로 들엉 동으로 나도, 올리 도끼
도 못 훑고, 베끼디⁷⁸⁾ 나완보난, 피체 7똥⁷⁹⁾ 도둑놈덜은 옷도 구쟁이 점뽕
이⁸⁰⁾ 다 앓앙 돌아나분 거라.

원, 옷도 멘들렉이 벗고 아무것도 이젠 엇인 거라. 게난 이레 돌아사도
강알⁸¹⁾에 것도 들앙들앙 저레 돌아사도 등강등강 허난. 그뻐 이제, 개똥
풀⁸²⁾ 허연에 이걸 어떻게허린 허연 그 풀 뜯어네 강알만 막안. 겐 강알만
막아앗언에. 이젠 집더레 그냥도 못 들어가난. 그때엔 이제 울다리 튀언
집이 간, 주쟁이⁸³⁾ 씨네. 뒤에 간 곱안. 어떻 아무도 못볼 때라근에 강 옷
이라도 훑앙 입주게 험. 주쟁이 썬 앓앗이난 정술택인 뒤에 장 거리레 간
보난. 개낭잎⁸⁴⁾ 뜯어네 강알 감추완 주쟁이 썬 앓앗이난, 뒤에 장 거리레
갓인디 어떻 주쟁이가 들썩들썩 험 거 아니. 게난

“아이고, 상전님아 큰일났우덴.”

허난

“무사?”

허난

“저디 주쟁이가 막 춤을 춰우덴.”

허난 이젠 상전님은 간.

“귀신이냐, 생인이냐? 어서 썩 나오렌. 귀신이건 썩 물러가렌.”

막 헤가난. 영 메록허게⁸⁵⁾ 나오는 건 보난 정수넴이 아니. 보난 옷도 멘
들렉이 벗어 개낭잎 허연 강알만 막안 앓이난

“이거, 어떻게한 일이니?”

허난

“아이고, 경 험게 아니고.”

거짓말을 험 거라.

“저 하늘에서 문왕상 문도령 궁네청 시네청 돌아앗엉 완⁸⁶⁾, 막 몸모욕

77) 멘들레기: 옷을 전부 벗어서 맨 몸이 들어난 상태

78) 베끼디: 밖에.

79) 피체 7똥: 동작이 재빠른 꼴을 나타낸 말.

80) 점뽕이: 점방이.

81) 강알: 사타구니.

82) 개똥풀: 누리장나무 잎.

83) 주쟁이: 띠나 짚으로 둥글게 엮어 가리 꼭지 따위에 덧덮는 물건.

84) 개낭잎: 누리장나무 잎.

85) 메록허게: 숨겨져야 할 것이 조금 나와 드러난 꼴.

허명 막 노념놀이 허는거 구경 허단 보난 물 아홉 쉼 아홉도 다 죽어불고, 오단 올리⁸⁷⁾ 혼쌍 맞형 오젠 현 게 황기도끼도 일러불고, 도둑놈들 다 구쟁이 점벙이 앓안 가부난 영 뗏우덴.”

허난

“아이고, 정수넴아. 물 아홉 죽은 것도 좋고, 쉼 아홉 죽은 것도 좋고 이. 옷 일러분 것도 좋다. 나 새 옷 주크메⁸⁸⁾ 경 허민. 느, 그 문왕상 문도령 내려왕 놀아난 디 알아질타?”

허난

“예. 알아지쿠덴.”

“게믄 느, 날 그디 돌아가줄타⁸⁹⁾?”

허난

“예. 돌아가쿠다.”

허난

“알앗젠.”

이레 오렌 허연. 이젠,

“넬랑⁹⁰⁾ 가게.”

허난

“상전님아, 가젠허민 물머리⁹¹⁾에 코스⁹²⁾도 허고, 밥도 허고 헤사 갑니덴.”

“젠 어떻게 어떻게 흘리느니?”

허난

“나 곤는 양 험서. 논쟁이⁹³⁾ ㄱ루 닷 웨건, 소금 닷 웨 낱 밥을 지으고. 또, 춤 ㄱ루⁹⁴⁾ 닷 웨건, 소금 혼 줌 노나마나 허영 밥을 지으고. 경 헤사 험니덴.”

이젠 경 허연 헤노난. 구쟁이 닷물⁹⁵⁾ 봉가단⁹⁶⁾ 물 발 들런에⁹⁷⁾ 물 발콥

86) 돌아앗영: 데리고 와서.

87) 올리: 오리.

88) 주크메: 줄테니.

89) 돌아가 줄타: 데려다 주겠느냐.

90) 넬랑: 내일되면.

91) 물머리: 말머리.

92) 코스: 교사.

93) 논쟁이: 메밀을 맷돌에 갈아 가루를 만들 때, 가루를 처낸 그 나머지로, 갈린 껍질과 가루가 뒤섞인 나깨.

94) 춤 ㄱ루: 참가루, 곧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아 순수한 메밀가루

95) 구쟁이 닷물: 소라 껍데기.

96) 봉가단: 주워서.

97) 들런에: 들러서.

알르레⁹⁸⁾ 찢른 거라. 그걸. 찢러네 물 우이.

“상전님아, 이디 잇입서. 나가 물 탕 버릇을 그르쳐사 헐거 아니쨌.”

허연. 물 탄 영 가젠 허난. 물은 자울락 자울락 구쟁기 물 박아나부난
건지 못헿 헤가난

“이거 봅서. 이거 물머리도 코스를 지내사 허는 겨우덴.”

허난

“경 허렌. 어떻 허는 거니?”

허난. 이레 밥이영 국이영 다 출려놉센 허연. 겐 문딱 이젠 밥이영, 국
이영, 채소영, 실과영, 이젠 제숙이영 구워노난. 절 허는체 흐명⁹⁹⁾ 그거를
확허게 빼어불엇주게. 구쟁기 물 빼된

“이거 코스 헤난 건 어떻 헷네까?”

허난

“게 느 다 먹어불라게.”

허난. 이젠 다리 쫓끄랭이 번어 앓안, 이제 그거 순작¹⁰⁰⁾만씩 빙에기만
씩¹⁰¹⁾ 다 먹어 놓안. 겐 그거 먹어된. 이젠 어리썩썩 물 탄게 지만 물 탄
막 돌아나부는 거 아니. 막 돌아나부난

“상전님아, 구덕¹⁰²⁾ 지영 이레 완삼서.”

헤된. 지만 막 돌아나부난

상전은, 즈청빈

“아이고, 정수넴아게 혼디 글라게¹⁰³⁾. 혼디 글라게.”

헤도. 지만, 천장아 만장아 막 돌아나부는¹⁰⁴⁾ 거라. 겐 막 돌아나부난 즈
청비는 가당가당 먹을거엔만 허민 탁 두리는 거난¹⁰⁵⁾. 점심이나 먹영 가
겐허든 이제 세울테주긴¹⁰⁶⁾ 허연.

“아이고, 정수넴이야, 나 배고판이 건지 못허키여. 오라 밥이나 먹영가
게.”

허난. 그때에 물을 세운 거라.

“경 헷서.”

98) 알르레: 아래.

99) 허는 체 흐명 : 하는 척 하면서.

100) 순작: 메추라기.

101) 빙에기만씩: 병아리만큼.

102) 구덕: 조금 큰 바구니.

103) 혼디 글라게: 같이 가자.

104) 돌아나부는: 달아나버리는.

105) 두리는 거난: 미치는 것이니까.

106) 세울테주긴: 세우겠지.

허연. 물 세완 이제 밥은 먹젠 허난

“상전님, 는쟁이 ㄱ루 닻 ㄹ 소금 닻 ㄹ 논 거, 상전님, 그거 먹읍서. 춤 ㄱ루 닻 ㄹ 소금 노나마나헌 건, 나 먹쿠다.”

허난. 어이척냥¹⁰⁷⁾ 엇인 거라. 경 헨 바짜주언에. 혼직¹⁰⁸⁾을 즈청비 끊어 먹으난. 짤짤헨 먹을 수가 엇어. 목이 캄캄 물란

“아이고, 정수넴아 나 짱¹⁰⁹⁾ 못 먹키여게 오라 바짱¹¹⁰⁾ 먹게. 바짱 먹게.”

허난.

“어디 바꿀 말이짜? 상전님 먹다 남은 건 종이 먹고, 종이 먹다 남은 건 개가 먹고, 개가 먹다 남은 건 쥐가 먹읍네다.”

경 허멍. 하도 지만 먹어가난

“게믄¹¹¹⁾ 나 못 먹키여. 느 나거영 다 앓아단 먹어블라.”

허난. 지건¹¹²⁾ 밥으로 삼고, 상전 건 반찬으로 삼안 순작만씩 빙에기만 썩 다 들러먹은 거 아니. 먹어놓안 이젠 물 타 앓언 어리썩썩 어리썩썩 허연 가멍

“아이고, 나 목 물란이. 정수넴아, 목 물란 못 가키여. 오라 물이나 흐뽀¹¹³⁾ 먹영가게. 요 물 먹영 가게.”

허믄

“아이고, 그건 게우리¹¹⁴⁾ 죽은 물이우다.”

가당가당

“영 허라. 이 물 먹영가게.”

“건 곡다귀¹¹⁵⁾ 죽은 물이우다.”

“아이고, 나 목 물란 못 가키여. 가단 이 물 흐뽀 먹영 가사키여.”

허믄

“그건 모기 죽은 물이우다.”

죽어도 못 먹게 구는 거라 경. 못 먹게 헨.

“게믄 어디강 먹느니?”

107) 어이척냥: 어처구니.

108) 혼직: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양.

109) 짱: 짜서.

110) 바짱: 바꿔서.

111) 게믄: 그렇다면.

112) 지건: 자기 것은.

113) 흐뽀: 조금.

114) 게우리: 지렁이.

115) 곡다귀: 각다귀.

허난

“흐썸만 더 가민 막 좋은 물 잇수덴.”

허연. 이젠 감감헌 게 그디 간 보난에 어디 숲 속 닳은디 간 이젠 허난.

“이 물 먹는 물이가?”

허난

“예. 이거 먹는 물이우다.”

“영 허라 나 물 먹저.”

“아이고, 상전님. 이 물은양, 아무상 잇이 경 먹는 물이 아니우다. 이 물은 먹젠허민양 나 뿐따랑¹¹⁶⁾ 먹어사 험네다.”

“어떻허연 뿐따랑 먹느니?”

“이거 손으로 거려 먹으민 손 물라가는 양¹¹⁷⁾ 물르고, 그릇으로 먹으민 그릇 물라가는양, 목이 물르는 물이라부난양. 이 물은 먹젠허민양. 옷, 우 알로 민짜¹¹⁸⁾ 벗어두언양. 옳더정 먹어사 목이 안 물라마썸. 게난 나 먹는 거 보양 먹읍서양.”

허연. 지 옳더전 먹으멍 뒤로

“아이고, 상전님아, 나 빠지쿠다. 나 즐레석¹¹⁹⁾ 등집서. 등집서.”

허난. 이젠 거 등견. 아이고, 경 허연 그 물 먹으난 어떻 헐 수가 잇이 이젠. 즈청비도 그 옷을 하나씩 두개씩 다 벗인 거 아니. 벗어두언 옳더전 물 먹단 보난 정수넴이 허는 말이

“아이고, 상전님아 그 물 아레 뵙서. 하늘옥황 문왕성 문도령네양 막 궁네청 시네청 느려완 노념놀이¹²⁰⁾ 험우게.”

영 보난 얼릉얼릉얼릉 허는 거라. 확 고개 들렁보난 낭 우터레¹²¹⁾ 즈청 비 옷 문딱 데껴뵙¹²²⁾ 얼릉얼릉 허난, 옥황에서 문왕상 문도령 궁네 시네 (宮女侍女) 들앙왓덴 거짓말을 험 거라.

‘아이고, 나가 이것인디 속아지엇구나. 이 노릇을 어떻허믄 좋으리.’

“야, 정수넴아. 나 옷 도라. 나 옷 도라.”

허난

“상전님아, 나 도렌허는 거 다 주켄 허민¹²³⁾ 옷 안네쿠다¹²⁴⁾.”

116) 뿐따랑: 무엇을 모범으로 삼아 그와 같이 쫓아 해서.

117) 물라가는 양: 말라가는 대로.

118) 민짜: 전부. 모두.

119) 즐레석: 묶는 줄 따위를 가리키는 말.

120) 노념놀이: 놀이하다. 놀며 지내다

121) 낭 우터레: 나무 위에.

122) 문딱 데껴뵙: 모두 던져두고.

“응, 기여 곱으라.”

“상전님에 입이나 혼번 맞춰보았이민¹²⁵ 좋암 직 허우다¹²⁶.”

허난.

“아이고, 우리집 강이, 나 누는 구들¹²⁷에 강이, 옛단질¹²⁸ 먹어보라. 나영 입맞춘 거보단 더 좋아진다.”

“상전님아, 읍서 상전님 젓대 곱은 허리나 안아보게마썸.”

“나 허리 안으는 거 보단이 나 눕는 방에 강이, 나 금상 이불에 강 원 양칭칭 잣베게 허연 누워보라 더 좋아진다.”

“읍서. 젓이나 혼번 문직어보게¹²⁹.”

“나, 젓 문직는 거보단이 나 눕는 구들에 강이, 가지깁이¹³⁰ 잇저. 그것 강 문직어보라. 흠 좋아진다.”

“상전님아, 읍서. 손이나 혼번 심어보게.”

“아이고, 나 손 심는 거 보단이 나 눕는 구들에 강이, 그디 들어강 보라. 경 허민 나 손 심는 거보다 더 좋아진다.”

이 핑계 저 핑계 해가난 막 부룩부룩 욕심을 내는 거라. 어떻 무스운¹³¹ 거라 이젠. 경 허연.

‘아이고, 저저 잘못 건드렸당 나가 살챇 목숨 꼭 죽어짐직 허난 저걸 어떻 달레사주겐.’

헨 거짓말을 헨 거라.

“야, 정수넴아, 이젠 오늘 밤인이 날이, 해가 지언. 이제 그냥 집이 갈 수가 엇이난 경 용심내지¹³² 말라. 아멩해도¹³³ 오늘밤이 느영 나영 이디 산골에서 누워 자사키여. 경 허난. 용심내지 말앙 느영 나영 뉿 잘거난 나 옷을 드라.”

허난. 그뻘 병삭허게¹³⁴ 웃으멍 이제 옷을 내어준 거라. 이젠 어디 나완
에

123) 주겐 허민: 주겠다고 하면.

124) 안네쿠다: 드리겠습니다.

125) 맞춰보았이민: 맞추어보았으면.

126) 좋암 직 허우다: 좋을 것 같습니다.

127) 구들: 방.

128) 옛단질: 옛단지를.

129) 문직어보게: 만져보게.

130) 가지깁이: 개지. 늦그릇의 뚜껑.

131) 무스운: 무서운.

132) 용심내지: 화내지.

133) 아멩해도: 아무래도.

134) 병삭허게: 병긋하게.

“야, 우리 한지(寒地)에 누워지느냐? 무시거¹³⁵⁾ 작지¹³⁶⁾라도, 돌맹이라도 허영 흐끔 움막이라도 들르라. 영 다왕 뉘사주. 이거 어디 허정청헨 누워 지크냐게.”

허난. 거 솟봉인 돌 우이 영 헤연 다와노난, 이젠 다 뉘젓이카부덴¹³⁷⁾ 서른으덱 닛바디¹³⁸⁾ 허우덩씩 웃으난. 영 안네 간 보난

“아이고, 정수넴아 이거 아이 뉘키여. 요 고망¹³⁹⁾이 베롱베롱베롱 허난 이 동네사람 누게가 넘어가단 보민이. 아는 사름은이. 종광 흐집이 혼디 누웠젠 허고¹⁴⁰⁾ 헨이. 욱헌다. 게난이. 이거 보리낭¹⁴¹⁾이라도 허영 고망을 막아사키여.”

허난. 그땐 이젠 보리낭허영 즈청비는 안네¹⁴²⁾에 잇고. 정수넴인 베깃디서¹⁴³⁾ 보리낭허연 부지런히 고망 막단보민, 즈청빈 안네서 세 고망 막으민, 흐 고망은 빵 불 솟앙 추와불고¹⁴⁴⁾. 다섯 고망 막으민, 두 고망은 빵 불 솟아불고. 밤세도록 그 ㄱ망 막단보난 붉아분 거라. 아이, 거난 또 커싱커싱 허멍¹⁴⁵⁾ 죽일팔로 허는 거아니.

“아이고, 정수넴이야, 이젠 기왕지사 오늘은 붉아부난이, 이젠 느영나 영 늙진 못허고 나 독무릅¹⁴⁶⁾더레 완 옳더지라. 나 니(이)나 잡아주마 허난. 독무릅더레 완 옳더지난, 데가린 걸언 보난. 이가 그냥, 바로 제일 흙은 건 군스(軍士)로 놓아두고, 제일 죽은 건 장수(將帥)로 놓아두고, 제일 죽은 건 군스(軍士)로 놓아뉘. 중간이만 똑똑똑죽여가난. 손은 즈청비 가슴도 강 문직젠¹⁴⁷⁾ 허웃허웃, 즈청비 강알더레도 손이 허웃허웃 경 허난. 어떻어뎡 달레연 이젠 소로록허게 즈이든 거라. 경 헨 즈드난.

‘요놈이 새끼 잘 되엇젠.’

허연. 천 근 쌀에 백 근 쌀을, 활을 내여 놓안, 즈청비가 정수넴이 귀더레, 웬 귀로 ㄴ단 귀더레¹⁴⁸⁾ 콧 쏘아분 거라. 게난 그냥 정수넴이가 죽어

135) 무시거: 무엇.

136) 작지 : 작은 돌맹이

137) 뉘젓이카부덴: 되어졌을까봐.

138) 닛바디: 이빨.

139) 고망: 구멍.

140) 누웠젠 허고: 누웠다고 하고.

141) 보리낭: 보리 수확한 짚

142) 안네: 안에.

143) 베깃디서: 밖에서

144) 불 솟앙 추와불고: 불을 때며 태워버리고.

145) 커싱커싱 허멍: 트집을 잡으려고 기회를 엿보면서 성질을 부리다.

146) 독무릅: 무릎.

147) 문직젠: 만지려고.

148) 웬 귀로 ㄴ단 귀더레: 왼쪽 귀에서 오른쪽 귀로.

분거 아니. 겐 죽으난. 이젠 내불어된 물 타 앓언.

‘이제랑 나 집이 거주긴.’

허연 왕강싱강 물 탄 가노렌 허난 산신대왕이 탁 나타난 허는 말이

“저디서 오는 저 아가씬지, 총각인지 어땡허난 브름알로 넘어가렌. 물 조름¹⁴⁹에 무지력 총각¹⁵⁰이 핏네¹⁵¹가 탕천허연 바짝 뒤에 쫓앗젠.”

겐 허연 브름알로 허연 집이 간

“어머님아, 아바님아, 나 여쭈 말씀이 잇습네다.”

허난

“어디 갔다 완디?”

허난

“나 곧는¹⁵² 말부떠 대답을 험서. 어머니, 아바지 종이 아깁수가?¹⁵³ 이 녀 애기가 아깁수가?”

허난

“아이고, 암만해도¹⁵⁴ 종이 아까운들 이녀 애기만이 아깁느냐.”

허난

“경 허지에. 게난 어머니, 나 정이웃인정수넴이 하도 행실(行實)이 궤썸 허연¹⁵⁵ 죽여된 오랏수다.”

허연.

“아이고, 요년, 저년. 예펜¹⁵⁶ 년이 사름을 죽이텐 말이 뭘 말이고.”

아이, 느 가고정 헌 데로 나가렌. 다올려분 거라¹⁵⁷. 다올려 부난 이젠 열다섯 십오세까지 입던 옷 걷어 설르고 나완.

‘어딜 가민 좋고.’

나산 텅기단¹⁵⁸. 브레보난¹⁵⁹ 서천꽃밭디¹⁶⁰ 부대감네 집이 공고를 썩 붙인 거보난.

‘우리 서천꽃밭디 부영새가 앓앙 올면 서천꽃밭디 검뉴울¹⁶¹이 자꾸

149) 물조름: 말뚝무늬.

150) 무지력총각: 머리를 풀친 총각.

151) 핏네: 피 냄새.

152) 곧는: 하는.

153) 아깁수가: 기본형인 ‘아깁다’는 비교 상대적인 것보다 우위인 것

154) 암만해도: 아무리해도.

155) 궤썸허연: 궤썸해서.

156) 예펜: 여자.

157) 다올려 분거라: 내쫓아 분거라.

158) 텅기단: 다니다가.

159) 브레보난: 바라보니.

160) 서천꽃밭디: 환생(還生) 꽃 멸망(滅亡) 꽃 등 주화(呪花)를 가꾸는 꽃밭.

161) 검뉴울: 시들어 가는.

뚝고 영 허니까. 아무라도 서천꽃밭디 부엉새를 잡아주면 내가 말젧사위를 허켤.’

딱 공고를 붙여 잇는 거라. 그때엔 이제 몰 이켤¹⁶²⁾ 들어간에 몰 세(舌)를 딱 허게 묶었어. 경 허연 춤썰로 묶언

“실례하겠습니다.”

허난

“예.”

허난

“아, 나 과거 정네엔 넘어가는 사람인데 공고를 보니까 서천꽃밭디 부엉새가 뭐 어떻 헤엿젠¹⁶³⁾ 허연 흥번 들어와 밧습네다.”

허난

“아이고, 부엉새만 잡아주면 이제 즈원(自願)사위 허쿤텐.”

허난

“우리 쉼 출¹⁶⁴⁾이나 흥꿈 줍서.”

허연. 출 앓아단주난 세(舌), 혀를 춤썰¹⁶⁵⁾로 묶어부난 먹질 못허주게. 막 음~ 헤가난

“야, 이 몰아, 저 몰아. 든건, 든 딛 행실허고. 나건, 난듯 행실허라. 어떻 경 집이서 먹어난 죽만 먹어지느냐.”

허난에. 그 부대감 각신

“아이고, 우리만 잘 살암덴 허단보난, 우리보다 더 잘 살앙 저 믱쉬¹⁶⁶⁾ 죽 썰 주는 생인게.”

경 헨 죽 썬단 주난. 그 춤썰을 탁 클러부난 할쭈할쭈 먹은 거라. 겐 밤인 누웠이란 부엉새가 부엉부엉 헤가난 웃통 솔허게¹⁶⁷⁾ 벗언. 서천꽃밭디 간 베따지¹⁶⁸⁾ 영 내연 누웠이란, 부영샌 그디 딱뚝헌¹⁶⁹⁾ 디 완. 베따지에, 우이 톱 앓으난 그자 폭허게 심언. 겐 화살 앓아간 그레 쥘런 꽃밭디레 데견 내불어서. 들어오명 창그망을 화살 그망만이 뜰란¹⁷⁰⁾ 들어와서. 아침엔 누원 안 일어나난. 자노렌 허난 부대감이 완.

162) 몰 이켤: 말을 이끌어서.

163) 어떻 헤엿젠: 어떻게 하고 있다고

164) 쉼 출: 소 꼴.

165) 춤썰: 명주실.

166) 믱쉬: 마소.

167) 솔허게: 살짝이

168) 베따지: 배(腹)의 낮은 말.

169) 딱뚝헌: 딱뚝한.

170) 뜰란: 뚫고서

“어떻, 언치냐¹⁷¹⁾ 어떻 무슨 소식이 엇어신가?”

허난

“아이, 누원 자노렌 허난 부영부영 허길레. 활 혼 대를 던지긴 던졌습 니다만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.”

허난. 서천꽃밭디 간 보난. 진짜 부영새가 활에 찢려 죽언 잇인 거라.
계난

‘아이고, 참 이거 우리 사위 혈만허덴.’

허연 이젠 즈원사월 헌 거 아니. 경 허연 즈원사월 헛인디. 석 달(月) 열 흘 백일을 막 잘 맥이고 해도 부부간에 관계가 없어. 이 남녀간에 구별법이 엇이난. 이제 말젯뜰¹⁷²⁾은 아버지, 어머니신디 말을 허뵈,

“어떻허난 저추록 도고(道高) 높은¹⁷³⁾ 사월 허연. 원, 이거 석 달 열흘 백일 뵈도 손도 하나 까딱 안 헛우다.”

허난. 이젠 사위 불러단. 즈청비 불러단

“어떻허난 우리 딸이 얼굴이 못 낫는가, 메치¹⁷⁴⁾가 못 낫는가? 뭐가 분 합해서 손도 하나 꼬딱 안 헛이니?”

허난

“아이고, 경 헌게 아닙네다. 나는 강남천저국 세변도원수(世變都元帥)를 막으레 가는 길이라서 부정허고 서정허연 가면, 이제 부정타서 안뵈까봐 제가 몸 정성을 하고 잇습네다.”

허난. 그 말도 들언보난 그럴 듯 헌 거라. 경 허연 이젠 서천꽃밭디 들 어간에. 이 핑계 저 핑계 허명. 피 오를 쫓, 솔 오를 쫓, 오장육부, 말 굴 을 쫓, 사름 생길 쫓이여 문딱 꺾은 거라. 겐 헛 꺾언. 몰르게 앓안 나완. 정수넴이 죽은 달 또 좇안 간. 그 쫓을 츠레츠레 대로 다 뵈. 송악낭 막테 기로 연세 번 때련. 살련. 또 물에 태완 어떻신디 간 거라.

“어머니, 아버지. 이녀 애기보다 더 아까운 종하님 살련 오랏수다.”

허난

“어따가라. 지집년이 남도 낫저. 사름을 죽이고 살리덴 말이 뵈 말이 고. 아이고, 나가렌.”

다울러부난. 이젠 그뻘 나완. 갈 디도 엇고, 울 디도 엇고, 어딜 가든 좋 고 헤연. 지만 비새곶이 울멍 덩기단보난. 주막집이 왈그락 달그락, 찰그

171) 언치냐: 어제 저녁.

172) 말젯뜰: 셋째딸.

173) 도고(道高) 높은: 거만하다는 의미임.

174) 메치: 맵시.

락 찰그락 무슨 소리가 나는 거라. 켜 영 보난. 비단을, 할망이 앓안 비단을 막 짚어. 계난 이제 비단에 탐난겨주게. 경 험 가네

“넘어가는 과거 정네(貞女)우다만은 할마님 목 들란 물이나 흐뎀 줍서.”

허난

“느도 예펜¹⁷⁵)이메 느 대로 정지에 강 거렁 먹으라.”

허난

“아이고, 계도 초행길에 어떻 뒤 험네까. 주인 모른 공서가 잇입네까.”

계명 허난,

“알앗젠.”

허연 이젠. 할망 물 뜨레¹⁷⁶) 가분 세에 비단클에 앓앙 막 비단을 짚 거라. 짜난, 할망은 완 물 주멍

“아이고, 애야, 그 비단은 어디 갈 건줄 알앙 느가 그 비단을 짚이니? 애야.”

허난

“어디 갈거파?”

허난

“거 문왕상 문도령 서수왕에 장계 가는디 갈 비단이여게 그거게.”

계난

아이고, 그 말 끝에는 이녁 내불어뉘¹⁷⁷) 서수왕에 장겘 간덴 말이 뉘 말이나. 눈물이 다름다름다름 떨어진 게. 비단을 짜멍 눈물이 떨어진 게, 그것이 금바독 옥바독이 뉘거라. 눈물 떨어진 게. 아이 계난. 할망은 완 보난 할망보단 더 잘 짜진 거라. 막 바독노멍, 무니 노멍 막 잘 짜지난.

“계난 느 어디레 가는 누게고?”

허난

“난 아방 눈에 골리나고¹⁷⁸), 어떻 눈에 시찌난¹⁷⁹) 갈데 올테가 엇언 영 유왕유리¹⁸⁰) 험우다.”

허난

175) 예펜: 여자.

176) 물 뜨레: 물 뜨러.

177) 내불어뉘: 내버려두고.

178) 골리나고: 눈에 거슬리고.

179) 시찌난: ‘골리나다’에 리듬이나 짝을 맞추기 위해 쓰인 것으로 추정됨.

180) 유왕유리: 마을을 돌아다니는 모습.

“느 비단도 곱게 짜고. 경 말앙 나신디 수양딸로나 들라.”

허난

“경 험서.”

경 헤연. 수양딸로 들엇인디, 할마님은 이제 그 홍세(紅絲)미녕¹⁸¹⁾을 다 짜지난. 그 미녕을 들러앗언 이젠 옥황에 올라간거주게. 문도령네 집이 가난. 이제 다 영 폐왕 보명, 다 폐왕 보단 보난 막꿏더레¹⁸²⁾ 가가난 더 곱게 짠 거라. 막 무늬 노명 막 헤진 거라. 문도령이

“이건 누게가 짠 거우파?”

허난

“아이고, 그건 우리 집이 수양딸이 짠 거라.”

허난에. 아, 막꿏디엔 ‘인간 즈청비.’ 험 글자를 딱 베겏젠¹⁸³⁾. 경 허난

“누게가 짜수젠?”

허난

“우리 집이 수양딸이 짠젠.”

허난

“게른 나, 오늘 밤 야사삼경 깊은 밤이 돼민 느려사쿠다.”

허난. 할망은 이제 완, 막 지꺼지언. 도고(道高) 높은 사위 헤지카부덴¹⁸⁴⁾ 막 그날밤이 이젠. 방도 느 흐나만 츠지허영 누라. 씨암톡도 딱 잡안 놔두고. 이제 사위 7심¹⁸⁵⁾ 오민 맥이젠. 경 험 독방 출런 눅지난¹⁸⁶⁾. 그날 밤 야사삼경 깊은 밤이 돼난 즈청비 눈 구들¹⁸⁷⁾에 그림자가, 허뜩비뜩 사름 그림자가 막 현 거라.

“귀신이나? 생인이나?”

허난에

“아이고, 귀신이 어찌 여기 올 수가 잇것느냐. 난 하늘옥황 문왕상 문도령이엔.”

허난. 즈청비가 7만히 생각을 허난.

‘문도령이 아니믄 내가 무사 이 팔자가 돼영 어멍 눈에 콜리나고, 시찌

181) 홍세(紅絲)미녕: 혼인잔치 때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가져가는 폐백인 무명.

182) 막꿏더레: 맨 끝으로.

183) 베겏젠: 박혀있다고.

184) 헤지카부덴: 할 수 있을까봐.

185) 사위 7심: 사위가 될 사람.

186) 눅지난: 눅히니.

187) 눈 구들: 누운 방에.

나고. 내가 이 귀양을 뎡기뎡 이걸 허리.’

생각을 허난 막 그냥 께쌌헌 거라. 경 허연 문도령이 분명허걸랑 창고망으로 손가락을 내밀렌. 겐, 영 헨 손가락을 창고망으로 내미난, 부에난¹⁸⁸) 집에 바놓으로 손가락을 꼭 허게 찢러붙어서게. 계난 즈진피(紫芝血)가 불긋허게 나난.

“아이고, 인간네는 이거 부정(不淨)허고 서정허연¹⁸⁹) 놀팍 네¹⁹⁰) 난 안 뉘켄.”

옥황더레 도올라¹⁹¹) 붙어서. 뒷날 아침인 할망은 막 씨암푹 놓아놨단, 그거 허연 죽 쑤고 허연. 그릇도 두개 놓고, 손가락도 두개 놓고 허연. 앓 안 들어온 거 아니. 들어완 보난. 혼자만 눈 거 아니.

“어뎡허난 어치냐 무슨 소식 엇어나?”

허난

“옥황에서양, 문도령 와십디다 만은양, 하도 생각허난 께쌌허연. 나, 바 놓으로 찢러부난 부정허덴 올라가뉘데다.”

허난

“아이고, 느 가라. 느 경 헤부난 느네 어뎡신디도, 아방신디영 부모 눈에 골리나고, 시찌난 나왔이네. 나도 느 닳은아이 못 들앙 살키여.”

나가렌 헨 내쫓아분 거라.

‘아이고, 계난 이제 갈 디도 엇고, 올 디도 엇고, 집도 나오고 이 노릇을 어뎡허린.’

헤연. 질레¹⁹²)에 유왕유리 허연 뎡기노렌 허난 궁네(宮女)청 시네(侍女)청덜은 앓안 비새(悲鳥)같이 아이들 울었어.

“느넨 누게고?”

허난에

“우린 하늘옥황 문왕성 문도령 아레 잇인 궁네(宮女) 시네(侍女)청이우다.”

허난

“무사 경 울었이니?”

허난

188) 부에 난: 화가 난.

189) 서정허연: 부정에 맞춘 조운구(調韻句)

190) 놀팍 네: 피비린 내.

191) 도올라: 도로 올라.

192) 질레: 길.

“문도령이 아판. 심리병이 난. 죽을 스경이 뉘난. 우리 ㄹ라 인간에 내려강 즈청비 먹는 물을 떠와사, 그 물을 먹어사 살아나지켤¹⁹³⁾ 헤연. 인간에 내려오긴 헛우다만은 즈청비 먹는 물이 어느 물산디¹⁹⁴⁾ 좇지를 못헛영 헛우덴.”

허난.

“경 허든. 나가 곶아주크메이¹⁹⁵⁾, 느네가 그걸 떠 올라강 표주박을 흔번만 더 내루왕, 날 흔디 우터레 옥황더레 돌아다주민 어떻허니?”

허난

“어서 경 헛서.”

허연. 이제 그 물 곶아주난. 그 물을 떠 올라가고, 이제 표주박을 또 흔번 내루왕 즈청비도 올라간거아니. 겐 올라가난 그 아이덜이 물을 잉어가는 걸¹⁹⁶⁾ 먼 디서 집까지 다 본 거라. 방이여 어디까지 다 환. 겐 그날 밤이 뉘난. 문도령 녹는 창문 엠¹⁹⁷⁾에 큰 도실낭이 잇이난 그 우이 올라간 앳안. 머리도 다 깎으고 헤연 앳안 잇이난에 문도령이 밤중엔 이 밤과 저 밤 세연 나완. 문 올안 나완.

“아따, 저 들은 참말로 곱긴 곱다만은 인간에 잇인 즈청비만은 아니 곱덴.”

허난

즈청빈 또 가호가호(家戶家戶) 촌촌(村村). 이젠 머리 삭발헤연에 권제¹⁹⁸⁾를 받으레 덩길 때로구나. 게난 권제 받으레 덩길 때난. 머리 다 깎으고, 송낙 쓰고 스님으로 출련. 경 헤연 그 집이 간에 권제 받안 나완. 처음엔 권제를 간. 흔번 간 받안 나완에 문도령 얼굴을 본거라. 다 보안 낫단. 또, 이젠 경 앳앳이난 낭 우이서 허는 말이

“어따, 저 들(月)은 곱긴 곱다만은 옥황에 문도령만이 아니 곱덴.”

허난

“거 누게니?”

내려오렌 허난. 내려온 건 보난. 낮이 권제 받으레 왔다 간 스님이라. 송낙을 확 벳건 보난 즈청비아니.

“아이고, 즈청비야, 이거 어떤헌 일이고?”

193) 살아나지켤: 살 수 있을 것 같다고.

194) 물산디: 물인지.

195) 곶아주크메이: 말해줄 터이니.

196) 잉어 가는 걸: 머리 위에 이고 가는 걸.

197) 엠: 길이나 담장가나 옆. 사람이나 물건의 걸.

198) 권제: 재미(齊米).

허난

“난, 당신 때문에 나, 팔자스주(八字四柱)가 다 그르천 영 뒤텔수다.”

허연. 이젠 이녁 구들더레 솔짝허게¹⁹⁹⁾ 들안 들어간 거라. 들안 들어간 디 그 전인 밥도허영 느진덕정하님이 밥을 구들에 드물리민, 반 사발뻬이 안떡영 나오던 밥이 흔 그릇 다 떡영 나오고, 세숫물도 땡 드물리민, 곱닥 허연 나오던 물이 팍팍 뒤텔²⁰⁰⁾ 나오고. 수건도 흔끗²⁰¹⁾만 젖영 나오던 수건이 양끗이 다 젖고. 아멩헤도 이상헌 거라. 겐 느진덕정하님이 영 창궂 땅으로 간 보난. 곱닥헌 애기씨가 팽풍 두깡²⁰²⁾으로 왔다갔다 허는 거 아니. 이젠 상전님네신디 간 일러분 거주게. 그 말을 간 곱으난. 상전님네 허는 말이

“아무라도 우리집 메누리로 올 자랑. 문국성, 씨아방 직량도폭을 딱 맞게 지어단 입지렌.”

허는 거라. 게난 이제 프리 몸으로 환싱(還生)헨 간. 지레기²⁰³⁾가 얼마니, 소매가 얼마니, 짓이 얼마니, 품이 얼마니 문딱 제연 완. 시아방 직량도폭을 헨 입지난 딱히 맞은 거라. 게 어디 선비들이나 모인 디 입언 가민

“아따, 그 옷 누게 지엿수과²⁰⁴⁾. 누게 지엿수과.”

허멍 막 허고 허난. 문도령이 어멍을 좇앙 갓구나. 어멍을 좇앙 간.

“어머님아, 나 예숙²⁰⁵⁾이나 흔번 제껴 봅서.”

허난

“응. 곱으라보게.”

허난

“묵은 장이 좋읍네까, 새 장이 좋읍네까?”

“새 장이 곧 먹을 땡 좋긴 좋아도 묵은 장만큼 짙은 맛은 엇나.”

“게믄, 새 옷이 좋읍네까. 묵은 옷이 좋읍네까?”

“어디 웨방²⁰⁶⁾ 갈 때 새 옷이 흔꿈 좋긴 좋아도이, 묵은 옷만이 방장무장²⁰⁷⁾ 입진 못헌다.”

199) 솔짝허게: 살그머니.

200) 뒤텔: 굶어서.

201) 흔끗: 한쪽.

202) 팽풍 두깡: 병풍 뒤.

203) 지레기: 길이.

204) 지엿수과: 지엿습니까.

205) 예숙: 수수께끼 놀이.

206) 웨방: 집을 떠난 먼 지방.

207) 방장무장: 격식을 따짐이 없이 항상 입을 수 있는

“게쁜 새 쌀밥이 좋읍네까. 묵은 쌀밥이 좋읍네까?”

허난

“새 쌀밥이 코시롱허게 좋아도 묵은 쌀만이 풀은 엇나.”

“새 사름이 좋읍네까. 묵은 사름이 좋읍네까?”

“새 사름이 좋긴 좋아도 묵은 사름만이 짚은 속은 모른다.”

“어머니, 나 서수왕에 장계 아니가쿠다.”

게난, 서수왕 딸은 문도령 장계 안가켄 헤부난 목 메연. 막 편지 슬
안²⁰⁸⁾ 먹고, 목메연 죽언. 새 몸에 헨 가불고. 아이고, 이젠 메누리 뉘 자
랑. 장계 아니가켄 허난. 아무나 잇어도 잇일거 아니겐. 도폭 지어단 시아
방 입으난 맞음도 허고허난. 나와근에게 쉰대자(五十尺) 땅을 판 거라. 그
레²⁰⁹⁾ 숲 쉰 가맹이²¹⁰⁾ 놓고 허연. 거에 불을 붙연. 우리 메누리가 뉘 자
랑 이 칼선드리²¹¹⁾ 밧아들고 밧아나렌. 게난 즈청비가

“멩천(明天)같은 하늘님아, 나 췌엔 헌건 정수냄이 죽엇단 살린 췌백
인²¹²⁾ 엇수다. 날 살리컬랑 하늘에서 비라도 오게 시겨 줘센.”

허연. 막 축원(祝願)을 헌 거라. 축원(祝願)을 허연 칼 우터레 탁 올라사
난 방울비가 도록도록도록, 비가 털어져 가난. 불은 와랑와랑 헌디, 비가
와가멍, 숫불이 꺼져가멍, 칼은 구워져가멍, 식어져가멍 허연. 마지막까지
다 가난. 시아방이 완,

“아이고, 나 메누리 뉘 자격이 적실허다.”

허연. 탁 안은게 뒷꿈치가 슬쩍²¹³⁾허게 빈 거주게. 겐 비난. 헤영헌²¹⁴⁾
치마각에 피가 댕어진 거라. 게난

“며늘애기야, 어떻허난 치마각에 즈지피(紫之血)가 붙엇저.”

허난. 거 밧 비영 헛텐 허민 안 뉘거난

“아바지, 모르는 소리 맵서. 우리 여정네(女貞女)덜은 열다섯 십오 세가
뉘민 선브름 후브름 월경법(月經法)도 잇습네다.”

허난

“아, 경 허넨.”

허연. 그때부터 이제 월경법(月經法)도 뉘텐 허고, 겐 이젠 다 끝나난.

208) 슬안: 태워서.

209) 그레: 거기에.

210) 가맹이: 가마니.

211) 칼선드리: 칼날 두 개가 모두 위로 향하여 놓인 것.

212) 췌 백인: 죄 밖에.

213) 슬쩍: 살짝.

214) 헤영헌: 하얀.

강남천즈국에 세변도원수²¹⁵)를 헛젠 허난. 문도령이 막으레 가살건디

“문도령님아, 그만히 앓아십서. 나가 강 막아 오쿠덴.”

경 허연 강남천즈국에 간. 세변도원수 간 막안 온 거라. 막앙오난, 이젠 그 밑에 삼천선비덜은 앓앙 놀고, 바둑 두고 이제 장기 두고 허는 디서는 문도령 그라

“거기 가시믄야, 느네 각신 어떻헌 각시고. 강남천즈국도 강 막아오고 어떻헌 각시고. 헛터 내라, 두터 내라.”

허멍 허는 게. 이제 흐를은 술, 걸인잔치 그추록²¹⁶) 헛덴 허연. 가젠 허난 소겔 허멍 이디 이만이 담안 주멍

“낭군님아, 가걸량양. 술을 천 잔을 주고, 만 잔을 주고. 그건 독약이우다. 독주우다. 먹지 말앙 그냥 이 알드레 다 담앙 읍서.”

허난. 간. 주는양 문딱 가슴더레만 담앙 오는게. 게와시(乞人)가

“아이고, 도련님아 나 술 흐 잔만 받앙 갑서.”

하도 허난. 게와식(乞人)건 어떻 안 허카부덴 그걸 말앙 먹은게, 물 우이에 알드레 탁 털어져분거라. 게난 물은 그냥 즈청비신디 놀아완 앞밭로 막 팡팡팡팡 지어가난.

“이 몰아, 저 몰아. 어서 흐저 글렌.”

허연. 물 우이 타난. 물이 간 건 보난, 문도령이 쓰러전 잇인 거라. 이젠 안앙, 흐썩 손으로 안앙 물 탄 이제 집이 완. 박거레²¹⁷) 눅져두고, 재열²¹⁸) 하나 심어단, 실에 묶언 창문에 돌아메난. 보로롱보로롱 그 재열 소리 나난. 이젠 그 동네 선비덜은 이제 문도령 죽엇젠. 우리 강 보젠 허연.

“저, 이디 문도령 어디 갓이니?”

허난

“아이고, 저 구들에양. 누월양. 저거 봅서. 저 코고는 소리. 바르릉 바르릉 소리 안났수과. 막 코글멍 잡수게.”

아, 진짜 보난 와르르와르릉 허는 거라. 무췌 즈배기²¹⁹) 헤 난. 확확 던지멍

“예. 이거.”

무췌 방식 허연 데끼멍

215) 세변도원수: 난리.

216) 그추록: 처럼.

217) 박거레: 바깥채.

218) 재열: 매미.

219) 즈배기: 수제비의 일종으로 가루를 되직하게 반죽하여 반죽을 조금씩 떼어내어 끓는 물에 넣어 익힌 음식.

“이 방석더레나 깔앙 앓읍서.”

허난. 아이, 즈청빈 데껴신디, 확 들르젠 허민 버청 들를 수가 엇어. 이 녀은 므물²²⁰⁾ 즈배기 헨 먹으멍. 그 선비덜신딘 쉼 헨, 무췌 즈배기 헨 권에.

“아이고, 이것들이나 혼 그릇씩 먹영 갑서.”

허난, 혼번 와드득 씹으난 그냥 니빨²²¹⁾이 다 꺾어지는 거라. 야, 이거 무섭고 석거운 사람이엔. 경 헨, 이제 그냥 뭐 헨게. 이젠 그 쫓을, 정수넴이 살려난 쫓을 낫단. 그걸 놓안, 이젠 문도령을 살린 거라. 겐 살린 허는 말이

“도련님아, 나, 사실은 정수넴이 살리젠 허난양. 서천꽃밭디 부대감네 집이 들어간. 나 그디 즈원사위 허엿단. 나, 나온 적이 잇수다. 게난 그딜 강 선 보름 살건, 나신디 후 보름 살고. 나신디 선 보름 살건, 그디 강 후 보름 살앙. 양쪽 살림을 허영 험서.”

허난, 경 허켄 헨 게. 그디 가난 하도 잘 해주난. 오꽃²²²⁾ 잇어분 거 아 니. 즈청비 생각을. 즈청빈 을 때 깃지 광목 치마를 간장 물에 등강²²³⁾ 널고, 간장 물에 등강 널고. 밤이는 촛이슬 맞고, 낮이는 촛벧²²⁴⁾ 맞으멍 막 등간 넌 거라. 겐 널엇당.

아, 어느날 갑자기 생각허난 문도령이

“아이고, 이거 즈청비 잇인걸 나가 잇어불어된 왓덴.”

경 헤연 이제 완에. 물 타얏언 오는 게 모자도 거꿀로²²⁵⁾ 쓰고, 사모관 디도 거꾸로 입고. 아멩이나 제게 헨 오는게, 막 거꿀로 헨 왓이난. 오직이나 날 브리기 싫어사 영 모자영 다 거꿀로 썬 읍네까. 종수덴 신도 거꿀로 신고 헨 왓이난. 그때엔 그 치메영 확 감아 입언. 난 가쿠다. 난 나 세상으로 금시상 느려사쿠덴 허연.

오젠 허민 치메각에, 간 돌아정

“아이고, 나 잘못해서게. 잘못해서게.”

영 등기문²²⁶⁾ 하도 간장에 블라부난²²⁷⁾ 복 치져지고²²⁸⁾.

220) 므물: 메밀.

221) 니빨: 이빨.

222) 오꽃: 곧. 즉시. 그만. 경황이 없이 불시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을 나타냄

223) 등강: 담가서.

224) 촛벧: 찬 별.

225) 거꿀로: 거꾸로.

226) 등기문: 당기면.

227) 블라부난: 문히니.

228) 치져지고: 찢어지고.

영 등경,

“아이고, 나 잘못해서게.”

허민 영 복 찾아지고 현 것이, 그것이 나무²²⁹)가 뗏덴예.

그것이 나무가 뗏덴허고, 이젠 내려오단 보난 정수넴이가 뻘뻘 물란²³⁰)
질레 앓은 거라.

“야, 정수넴이야, 느 어떻헌 일이고?”

허난

“아이고, 큰 상전님네 다 죽어부난. 갈 데 올 데 엇고, 베고프고 시장
허연 영 앓았수덴.”

허난.

“글라. 가게 나 느 밥이나 얻어 먹여주메.”

헨. 어떤, 막 부제칩이 물므쉬에, 사름에덜 헤연. 밧 하나, 막 담아 낀.
밧 가는 디가 잇이난, 간.

“실레허쿠다만은. 먹던 밥이라도 잇거들랑 흐꿈만²³¹) 줍서. 요기나 행
가쿠다.”

허난. 막 욱만 허는 거라.

“젊은 것들이 손이 없나. 발이 없나. 너네대로 행 먹으라.”

허멍 막 욱만 허연. 아이고, 아니 뉘켄. 또 이제 오단 보난. 할망, 하르
방만 글갱이²³²) 용쉬 행은앵에 들랭이 밧디²³³) 허는 디 잇이난, 그디 간

“아이고, 하르버지, 할머니 쉼송허우다만은. 먹던 밥이라도 잇걸랑 이
레 흐춤만, 우리 요기헨 가쿠다.”

허난,

“아이고 게, 인척²³⁴) 오랏이민 우린 못 먹어도 느네 줄걸. 저디 강 보
라, 차룽²³⁵)에 간 보라.”

허연. 그걸 이제 먹으난. 그 할망, 하르방 준 디랑, 그 밧디랑 모든 게
막 잘뉘게 헤연. 가지으름²³⁶), 쇠으름 올라근에게²³⁷). 조도 허민 왕강싱강

229) 나무: 나비.

230) 물란: 말라서.

231) 흐꿈만: 조금만.

232) 글갱이: 호미.

233) 들랭이 밧디: 아주 작은 밧.

234) 인척: 일찍.

235) 차룽: 대나 싸리를 이용하여 네모나고 속을 좀 깊숙하게 결고 뚜껑을 만들어 주로 음식 따위를 넣
어 다니기 좋게 만든 그릇.

236) 가지으름: 가지열매.

237) 올라근에게: 열어서.

허게 허고, 보리에도 감비역²³⁸⁾도 주게 말고, 산디에 나분데기²³⁹⁾도 주게 말고, 콩에 반착짜리 저접께²⁴⁰⁾도 주게 말앙, 막 부자팔명 뉘게 허고. 그 쉼쉬여, 물쉬여. 막 잘사는 밧디랑, 가난 밥 흔적도 안 쥘게. 저 밧디랑 하간 거 허결랑, 문딱 아니만 뉘게허렌 허연. 그 법으로 우리가 밧디강 밥 먹젠 허문, 제석할망 나시렌²⁴¹⁾ 허영. 문저, 서너 밧더레 케우려뉘²⁴²⁾ 밥 먹고 허는 거. 계난 용시²⁴³⁾를 헛인디, 오곡농스(五穀農事) 씨를 탕 와야 농사를 질 건디. 이젠 염제실농씨안티 이젠 즈청비가 올라간 거라. 올라간. 오곡씨를 타앗언 내려오단 생각해 보난, 모물썌²⁴⁴⁾ 안 탄 와져서. 계난, 이제 두 번차 올라간 모물씨 타난. 포따리도 안 앓앙 가고, 아무것도 안 앓앙 가부난, 그때엔 소중기²⁴⁵⁾ 벗언. 소중기 쌍 모물씨 앓앙 와나부난. 모물씨는 소중기에 앓앙 오명²⁴⁶⁾ 걸름²⁴⁷⁾ 위영 어디영 찰찰찰찰 혈명²⁴⁸⁾ 앓안 와부난, 걸름 위에도 나고, 모물은 늦은 농스허여도 흔디 헤 먹고, 모물은 말쎈²⁴⁹⁾ 탄 와부난 경 헛젠 허연 세경본입니다.

238) 감비역: 껌부기.

239) 나분데기: 벼 이삭이나 콩 따위의 꼬투리에 열매가 달렸으나 여물지 못한 것.

240) 저접께: 벼나 콩 따위의 낱알이 깨어져서 온전하지 못하게 된 것

241) 나시렌: 뉘이라고.

242) 케우려뉘: 멀리 흩뿌리거나 획 내던져 두고.

243) 용시: 농사.

244) 모물썌: 메밀씨.

245) 소중기: 무명으로 만든 여자의 속옷인데, 폭이 넓고 길이는 무릎까지 옴. 주로 해녀들의 물웃으로 쓰였음

246) 앓앙 오명: 갖고 오면서.

247) 걸름: 거름.

248) 혈명: 주로 쌀 따위를 그릇이나 자루에 담아 넣을 때, 잘못 넣어서 바닥에 흩뜨리거나 그릇이 뒤집어져 바닥에 내뿜린 상태.

249) 말쎈: 나중에.